

# 원측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 역주(3) - 텍스트 교정을 겸해 -

장규언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연구교수)

## 해제

이번 회 연재분은 먼저 형식적으로는 「역주1」과 「역주2」에 걸쳐 이루어진 ‘여덟 식의 특성들[八識差別]’이라는 매우 긴 예비적 논의 끝에 비로소 이루어진 「역주1」에서 소개했던 경문에 대한 본격적인 해석이라 볼 수 있다. 먼저 ‘과단(목차)의 일부를 통해 해당 경문(廣慧當知! 於六趣生死彼彼有情衆中, 或在卵生, 或在胎生, 或在濕生, 或在化生, 身分生起.)과 이어지는 경문(於中最初一切種子心識成熟·展轉和合·增長廣大.)의 전체 주제가 바로 ‘제8식(識)의 여러 이름들’ 중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임을 명시한다. 이어서 경문의 ‘일체종자심식(一切種子心識)’의 ‘종자’라는 단어가 지칭하는 것이 ‘세 가지 습기[三習氣]’라고 명시한 뒤, 앞서 ‘여덟 식의 특성들’처럼 ‘세 가지 습기’에 대한 매우 긴 독립적 논의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나머지 과단’을 통해 해당 경문이 ‘종자식’에 관한 내용 중 전반부에 해당함을 지적하고 있다. 그러므로 ‘세 가지 습기’에 관한 독립적 논의가 분량적으로도 내용적으로 원측이 가장 공들인 부분으로 볼 수 있다.

원측은 ‘세 가지 습기’를 대략 네 가지 관점, 즉 이름 해석(=정의), 본질 명시(=다르마 체계 상의 분류), 만들어 내는 결과의 차이(=관련되는 경험의 본성 차이), 네 가지 원인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차이(=원인의 본성 차이)를 통해 분석하고 있다. 이 작업은 ‘습기(習氣, vāsanā)’(=종자種子)라는 유식(唯識) 논서에서 보편화된 개념을 전

통적 다르마 체계의 언어를 통해 자기 자리를 찾아주는 과정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여덟 식의 특성들과 비교해 볼 때 흥미로운 점은 이 분석이, 일부 『성유식론(成唯識論)』의 선택적·요약적 인용을 제외한다면, 대부분 원측 자신의 간결한 서술로 구성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마지막 부분에서 자세한 내용은 자신이 인용한 문장이 속한 『성유식론』 제8권에 대한 자신의 주석, 즉 『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에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는 점(若廣分別, (如)『成唯識論』第八『疏』)에서 이 부분은 『성유식론소』 주석의 요약적 재편집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세 가지 습기’ 해설 중 개인적으로 흥미를 끈 곳은 ‘習氣’에 대한 원측의 중국어 식 훈고이다. 여러 위험 요인을 안고 있음에도, 불교 전통 밖 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가깝게 다가가려는 의도에서 한역 불교 용어의 현대 한국어 번역을 시도하고 있는 필자는 그 산스크리트어 원어 ‘vāsanā’의 의미를 모르는 ‘한자문화권의 비전문가 독자’에게도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습기’의 번역어를 고심해 왔는데, 원측의 ‘習之氣種子’를 참조하여 ‘습관의 (잠재적) 힘’ 정도로 번역해도 대과는 없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다. 『성유식론』에 근거한 원측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중생의 삶은 크게 보았을 때 ‘물리적·심리적 언어[名言], ‘자아 집착[我執], ‘말·몸·뜻으로 짓는 의지적 행위[有支]라는 ‘습관[習]’으로 이루어지며, 그 ‘습관’은 모종의 ‘영향력[氣種子]’을 남기고 그것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그 ‘습관’을 반복하도록 만든다고 한다.

이번 역주에서 필자는 한역어의 과감한 현대 한국어 번역, 꺾음 괄호를 활용한 문구 보충, 각주를 통한 인용문의 출처와 전후 맥락 제시, 案을 통한 보충 설명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원측이 분석한 ‘세 가지 습기’의 의미를 이해해 보려고 시도해 보았다. 다만 문헌적 근거 제시 없이 이루어진 서술의 경우는 관련 문장을 둘러싼 콘텍스트를 숙지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번역이나 해석이 모호하거나 잘못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다. 독자들의 양해를 구하며, 눈 밝은 이들의 지혜의 말씀을 기다린다.

(2-1-1-1-2-2: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답함[對問正答]

2-1-1-1-2-2-1: 心, 意, 識의 숨은 의미를 밝힘[明心意識秘密義]

2-1-1-1-2-2-1-1: 제8식(識)의 여러 이름이 함축하는 [제8식의] 특성을 밝힘[明第八衆名差別]

2-1-1-1-2-2-1-1-1: [제8식의 여러 이름 중]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의 의미를 해석함 [釋一切種子識]

2-1-1-1-2-2-1-1-1-1: 육취(六趣)와 사생(四生)의 관점에서 경문의 ‘身分生起’의 의미를 밝힘[約趣·生略明身分生起]

X. 21 240b5-6; WX. 34 719b3-4

廣慧當知! 於六趣生死彼彼有情衆中, 或在卵生, 或在胎生, 或在濕生, 或在化生, 身分生起.

광혜여 마땅히 알라! 여섯 길 윤회 중의 저들 중생 무리 중 어떤 이는 알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태로 태어나며, 어떤 이는 수분을 통해 태어나며, 어떤 이는 변신하여 태어나는 등 상이한 몸으로 태어나느니라.

### 가. 이 구절의 주제

X. 21 240b7; WX. 34 719b5

釋曰. 自下第二對問正答.

해석한다. 이하는 둘째 질문에 대해 올바르게 답함이다.

### 나. 여덟 식의 특성들을 밝힘[八識差別]

... )

### 다. 2-1-1-1-2-2 이하의 과단

X. 21 242b6-10; WX. 34 723b4-8:

就釋文中.

文別有二, 初明‘心意識秘密之義’, 後‘廣慧如是’下辨秘密善巧答前兩問.

前中有二, 初明第八衆名差別, 後'廣慧阿陀那識'下明諸識俱轉差別.

前中有四, 一釋種子識, 二辨阿陀那, 三明阿賴耶, 四顯心名, 此即第一釋一切種子識\*.

[여덟 식의 특성들을 다 밝혔으니, 이제 心, 意, 識의 의미를 본격적으로 밝히는] 경문 해석 과정에 들어가겠다[就]<sup>1)</sup>.

경문은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心, 意, 識의 숨은 의미를 밝힌 것이고, 뒷부분 '廣慧如是' 이하는 [心, 意, 識의] 숨은 뜻에 대한 섬세한 앎의 의미를 밝힘을 통해 앞 [경문]의 두 물음(=心, 意, 識의 숨은 뜻에 대해 섬세한 [앎을 지닌] 보살과 관련하여, '어떤 [경지]에 한정해서' 心, 意, 識의 숨은 뜻에 대해 섬세한 [앎을 지닌] 보살이라 부르신 것입니까[於心·意·識秘密善巧菩薩者, 齊何名爲於心·意·識秘密善巧菩薩]와 '어떻게 서는 '어떤 [보살]에 한정하여' 그를 心, 意, 識의 숨은 뜻에 대해 섬세한 [앎을 지닌] 보살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까[如來齊何施設彼爲於心·意·識秘密善巧菩薩]<sup>2)</sup>)에 대답한 것이다.

이 앞부분도 둘로 나누어지는데, 앞부분은 제8식(識)의 여러 이름이 함축하는 [제8 식]의 특성을 밝힌 것이며, 뒷부분 '廣慧阿陀那識' 이하는 여러 식들 간의 동시 발생의 특성을 밝힌 것이다.

또 이 앞부분도 넷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부분은 [제8식의 여러 이름 중] 종자식(種子識)[이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특성을 밝힌 것이고, 둘째 부분은 아타나식(阿陀那識)[이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특성을 밝힌 것이고, 셋째 부분은 아뢰야식(阿賴耶識)[이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특성을 밝힌 것이며, 넷째 부분은 심(心)이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특성을 밝힌 것이므로, 이 구절은 바로 그 첫째 부분인 일체종자식(一切種子識)[이라는 이름이 함축하는 특성을 밝힌 것이다.

案: \* 괄호 속 보이는, 「역주1」에서 명시한 '2-1-1-1-2-2-1-1-1-1 이하'의 과단은, 뒤에서 확인 가능하듯, 이어지는 '세 가지 습기'에 대한 독립된 논의 후에야 비로소 등장한다. 『해심밀경소』 전체를 통틀어서 경문을 제시된 후 바로 과단이 등장하지 않고, 지금의 경우처럼 독립된 논의(「역주1」과 「역주2」에 걸친 '나. 여덟 식의 특성들을 밝힘') 후에야 그 일부(위 과단)가 등장하고, 다시 그 후에 독

1) 경문 직후의 주석인 위 괄호 안의 가. 이 구절의 주제에 이어지는 아래 목차 소개(X, 21 240b7-10; WX, 34 719b5-8, 「역주1」 장규언 2013, 146) 참조. 此心·意·識, 卽是八識, 故今先辨八識差別, 後方正釋心·意·識義. 八識差別, 略辨六義, 一種數多少, 二釋名字, 三出體性, 四所依根, 五所緣境, 六心所相應.

2) 자세한 내용은 「역주1」의 관련 부분(장규언 2013, 137-138) 참조.

립된 논의(이어지는 '바, 세 가지 습기에 관한 네 가지 관점의 분석')가 이어지고, 그 후에야 나머지 과단(뒤의 '바')이 등장하는 식의 구성은 찾아보기 힘들다.<sup>3)</sup> 최초의 과단에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재차 독립된 논의들을 편집해 넣는 과정을 거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본다.

## 라. 이어지는 경문 중 ‘一切種子’의 의미와 그것에 근거한 위 경문 해석

X. 21 242b11-17; WX. 34 723b8-15:

一切種子，卽三習氣，此中意說，由第八識攝持三種習氣結生相續。故『成唯識』第八卷云，“復次生死相續，由諸習氣。然諸習氣，總有三種，一名言習氣，二我執習氣，三有支習氣。”<sup>4)</sup>

其種子識，自有二種，一識所持種名種子識，二能持種識名爲種識。雖有二種，今此正明能持種識。身分生時，執持所依及種子故，彼所持種卽三習氣故。

[위 경문에 이어지는] 경문 [於中最初一切種子心識成熟·展轉和合·增長廣大(그 과정에서 최초로 ‘일체중자심식一切種子心識’이 성숙하고 점진적으로 결합하고 성장하느니라) 중 ‘一切種子’는 바로 세 가지 습기(習氣, vāsanā)를 지칭하므로, 이 구절(=於六趣生死彼彼有情衆中, 或在卵生, 或在胎生, 或在濕生, 或在化生, 身分生起(여섯 길 윤회 중의 저들 중생 무리 중 어떤 이는 알로 태어나고, 어떤 이는 태로 태어나며, 어떤 이는 수분을 통해 태어나며, 어떤 이는 번신하여 태어나는 등 상이한 몸으로 태어난다.)은 [중생은 각자의] 제8식이 세 가지 습기를 간직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어나서 [윤회를] 지속하게 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성유식론(成唯識論)』 제8권에서 “또 윤회의 지속은 여러 습기로 말미암는다. 그런데 여러 습기는 총괄하면 모두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는 언어[名言] 습기이며, 둘째는 자아 집착[我執] 습기이며, 셋째는 중생적 삶의 요인[有支] 습기이다.”<sup>5)</sup> 라고 말한 것이다.

이 중자식에도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식에 의해 간직되는 중자[識所持種]를

3) 이 때문에 필자도 과단을 오독하는 큰 실수를 범하였다. 「역주2」의 마지막 案(장규연 2020. 110)의 첫 문장 “이상으로 「역주1」의 ‘心, 意, 識의 숨은 의미를 밝힘[明心·意·識秘密義]이라는 큰 주제 아래 먼저 일종의 총론인 ‘제8識의 여러 이름의 의미를 밝힘[明第八衆名義]’이 마무리되었다”는 “이상으로 「역주1」에서부터 시작된 본격적인 경문 해석 전의 일종의 총론인 ‘여덟 식의 특성들을 밝힘[八識差別]’이 마무리되었다”로 수정해야 한다.

4) 인용 전후 문장은 이어지는 각주7 참조.

종자식이라 부르는 경우이며, 다른 하나는 종자를 간직하는 식[能持種識]을 종자식이라 부르는 경우이다. 비록 두 가지가 있지만 지금 이 구절(=於六趣生死彼彼有情衆中, 或在卵生, 或在胎生, 或在濕生, 或在化生, 身分生起.)의 경우는 종자를 간직하는 식에 초점을 맞추어[正?] 밝히고 있다. 왜냐하면 [중생이] 상이한 몸으로 태어날 때 [바로 그들의 제 8식이] 의지처[所依](=몸)와 종자를 붙들며 간직하며[執持]\*\*, [그때] 그 [제8식]에 의해 간직되는 종자가 세 가지 습기이기 때문이다\*\*\*.

案: \* 이어지는 ‘세 가지 습기에 관한 네 가지 관점의 분석[四門分別] 중 첫째 ‘이름 해석[釋名字], 그 중에서도 세 가지 습기 ‘각각의 이름[別名] 해석’(X. 21 24b22와 WX. 34 724a2 이하)에서 위의 이름 나열에 이어지는 각 습기에 대한 해설을 포함한 보다 온전한 인용문이 등장한다.

\*\* 이후의 경문 ‘廣慧! 此識亦名阿陀那識. 何以故? 由此識於身隨逐執持故(광혜여! 이 식(=一切種子心識)을 또한 아타나식阿陀那識이라고 부른다. 왜 그런가? 이 식은 몸을 따라가며 執持하기 때문이다.)’에 대한 주석 중 원측이 소개하는 『성유식론』은 執持(또는 執受)의 대상으로, ‘물질적 인식 기관[色根]과 그 의지처[依處](=인식 대상)과 ‘수태시의 몸[結生相續]’ 외에, ‘모든 현상의 종자[諸法種子]’를 들고 있다(X21. 246a19와 WX. 34 731a11 이하: 釋曰. 此即第二釋阿陀那識. ... 謂由此識隨逐於身, 執受色根, 令不失壞, 故說此識名爲執持. ... 依『成唯識』, 具有三義. 故第三云, “以能執持諸法種子, 及能執受色根·依處, 亦能執取結生相續, 故說此識名阿陀那). 따라서 이 서술 속 執持의 대상인 ‘의지처’는 ‘물질적 인식 기관과 그 인식 대상과 ‘수태시의 몸’을, ‘종자’는 ‘모든 현상의 종자’를 각각 지칭한다고 볼 수 있겠다.

\*\*\* 「역주2(장규언 2020. 103)에서 보았듯이, 원측은 ‘결함 있는 아뢰야식의 인식 대상’으로 제시한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의 ‘상상의 대상이 그 본질인 비존재에 대한 집착 습기[遍計所執自性妄執習氣]’(위와 같은 곳. 각주21 참조)와 『성유식론』의 ‘결함 있는 종자[有漏種子]’라는 표현을 통해 종자(=습기)의 본질(遍計所執自性妄執)과 본성(有漏)을 간략히 언급했는데, 여기서는 그것들을 세 가지로 나누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려 하고 있다.

## 마. 세 가지 습기에 대한 네 가지 관점의 분석[四門分別]

### 1) 분석의 관점 소개

X. 21 242b17-19; WX. 34 723b15-17:

今略辨三種習氣，然三習氣，略以四門分別，一釋名字，二出體性，三生果差別，四四緣分別。

지금부터 세 가지 습기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보겠다. 그래서 세 가지 습기를 대략 네 가지 관점에서 분석하려 하는데, 그 첫 관점은 [‘三習氣’라는] 이름을 해석하는 것이고, 둘째 관점은 [세 가지 습기의] 본질을 명시한 것이고, 셋째 관점은 [세 가지 습기 각각이] 만드는 결과의 차이이며, 넷째 관점은 [세 가지 습기 각각이] 네 가지 원인[四緣] [중 어디에 귀속되는지]의 차이이다.

### 2) 구체적 분석

#### 1. 이름 해석

##### (1) ‘三習氣’라는 포괄적 이름[通名] 해석

X. 21 242b20-22; WX. 34 723b18-724a2:

第一釋名，有通有別。三習氣者，是其通名。三是標數。言習氣者，說名言等，名之爲習，第八中種習之氣分，故名習氣。即六釋中帶數釋也。

먼저 [‘三習氣’라는] 이름을 해석하려 하는데, [이름에도 ‘三習氣’라는] 포괄적 이름도 있고, [세 가지 습기] 각각의 이름도 있다. ‘三習氣’라는 표현은 그 중 포괄적 이름이다. [그 중] ‘三’은 [습기의] 수를 나타낸 것이다. ‘習氣’의 경우, 언어[名言], 자아 집착[我執], 중생적 삶의 요인[有支](=업業)<sup>5)</sup> 등을 ‘습관[習]’으로 이해하였고, 제8[식] 속 종자는 그 습관이 지닌 ‘힘의 요소[氣分?’이라는 점에서 [그 종자를] 습기라고 한 것이다.\*<sup>6)</sup> 따라

5) 다음 단락의 『성유식론』 인용문 속 ‘세 가지 습기에 대한 해설 참조.

6) ‘言習氣者~帶數釋也’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68.526.15-17: / bag chags ṣes bya ba ni mñon par brjod pa (la sog pa)\* la bag chags ṣes byaḥo/ /brgyad pa la yod paḥi sa bon gyi bag chags cha\*\*

서[卽] [三習氣는] 여섯 가지 합성어 해석[六釋=六合釋, ṣaṭ-samāsa] 중 대수석(帶數釋, dvigu)이다.

案: \* 하나의 글자가 하나의 의미를 형성하는 중국어의 단음절 언어(monosyllabic language)적 특성 때문에, 한문 불경 주석에서는 이처럼 복합어가 아닌 ‘vāsanā’라는 한 단어의 번역어일 뿐인 習氣에 대해서도 다시 習과 氣로 나누어 분석하는 식의 관행이 오래전부터 존재했다. 이 부분은 불교 전통 바깥에 있는 지식인을 포함한 당대의 독자들을 위한 중국어식 훈고(訓詁)라 할 수 있을 것이다.

氣分の 일반적 용례(기질, 신분이나 체면)는 이 문맥과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필자는 氣와 分을 나누어서 나름대로 원측의 본의를 추측해 보았다. 여기서 氣는 고전 중국어의 용례 중 ‘효력’, ‘작용’을 뜻하는 경우와 가장 가까운 듯하다(이상 모두 『漢語大詞典』 ‘氣’ 항목(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2000. 1669) 참조). 分은 불교적 맥락에서는菩提分法의 경우처럼 ‘āṅga’의 번역어로서 ‘요소’, ‘성분’ 등의 의미로 쓰이며, 또 그 의미가 ‘종자의 현상에 대한 원인적 측면을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요소’라고 번역해 보았다.

## (2) 세 가지 습기 각각의 이름[別名] 해석

X. 21 242b22-c9; WX. 34 724a2-13:

言別名者, 如『成唯識』, “然諸習氣, 總有三種.

一名言習氣, 謂有爲法各別親種. 名言有二, 一表義名言, 卽能詮義音聲差別. 二顯境名言, 卽能了境心·心所法.【(如其次第, 舊云‘言說名’·‘思惟名’也.)】

二我執習氣, 謂虛妄執我·我所種. 我執有二, 一俱生我執, 卽脩所斷我·我所執, 二分別我執, 卽見所斷我·我所執. 隨二我執所熏成種令有情等自·他差別.

三有支習氣, 謂招三界異熟業種. 有支有二種, 一有漏善, 卽是能招可愛果種〈業〉, 二

---

yin pahī phyir bag chags ṣeṣ bya ste/ \*P. N.을 따라 等に 상응하는 la sogs pa 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P. N. -cha)은 의미 있는 번역이라 보기 어려우며, 이어지는 氣種子의 경우처럼, 氣에 대한 번역이 누락되어 있다. 티벳어는 ‘vāsanā’의 번역어로 ‘bag chags’이 정착되어 있는데, ‘bag chags’에서 氣의 의미를 찾아내기는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번역가 최듬의 곤경을 가늠해 볼 수 있을 듯하다.

諸不善，即是能招非愛果報〈業〉<sup>7)</sup>.”

解云，三習氣相，如『論』應知。三種習氣，皆依主釋，謂名言習之氣種子故，乃至有支習之氣種子故。

[세 가지 습기] 각각의 이름의 의미는 『성유식론』의 다음에서 말한 대로이다. “그런데 습기들을 총괄하면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언어[名言] 습기는 조건적 현상[有爲法] 각각에 대한 직접적인 종자[親種]를 말한다. 언어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지칭 대상[義, artha]을 지칭하는 언어[表義名言], 즉 지칭 대상을 지칭하는[詮=詮表, √bhāṣ] 특수한 소리[音聲差別, viśeṣa-śabda] (=의미 있는 소리)이다. 다른 하나는 인식 대상[境, viśaya]을 설명하는 언어[顯境名言]이며, 이것은 인식 대상의 특징을 식별하는[了=了別, vi√jñā] 마음과 심리 현상을 지칭한다.\*([表義名言과 顯境名言을] 순서대로 옛날에는 ‘言說名’과 ‘思惟名’이라고 하였다.\*\*)

둘째 자아 집착[我執] 습기는 ‘나[我], ‘내 것[我所]’ [등의 비존재[虛妄, abhūta]에 대한 집착 종자를 말한다. 자아 집착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출생과] 동시 발생적인 자아 집착[俱有我執]이며, 이것은 선정의 길[修=修道]을 통해 끊어질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지칭한다. 다른 하나는 분별에 근거한 자아 집착[分別我執]이며, 이것은 통찰의 길[見=見道]을 통해 끊어질 ‘나와 내 것’에 대한 집착을 지칭한다. [이] 두 가지 자아 집착의 영향 하에서 형성된 종자가 생명 등으로 하여금 나[自]와 타자[他]을 분별하게 만든다.

셋째 중생적 삶의 요인[有支] 습기는 세 가지 [윤회] 세계라는 과보[三界異熟]를 불러오는 행위 종자[業種]를 말한다. 중생적 삶의 요인에는 두 가지 있다. 하나는 결함 있는[=번뇌 영향 하의] 선한 것이며, 이것은 원하는 과보를 불러오는 행위를 지칭한다.

7) ‘有支有二種~非愛果報’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68.527.12-15)과 현존 『성유식론』에 비추어 볼 때 種과 報 모두 業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srid paḥi yan lag kyaṅnam pa gñis te/ zag pa daṅbcas paḥi dge ba ni ḥbras bu yid du ḥonba ḥdren paḥi las gaṅyin paḥo/ /mi dge ba ni ḥbras bu yid du ḥonba ma yin pa ḥdren paḥi las gaṅyin paḥo

『成唯識論』卷8 (T. 31 43a9-12 ... 43b2-17): 雖有內識而無外緣，由何有情生死相續? 頌曰：由諸業習氣，二取習氣俱/ 前異熟既盡 復生餘異熟//(19) 論曰。... 復次生死相續由諸習氣，然諸習氣總有三種，一名言習氣，謂有爲法各別親種。名言有二，一表義名言，即能詮義音聲差別，二顯境名言，即能了境心·心·所法。(隨二名言所熏成種作有爲法各別因緣)\* 二我執習氣，謂虛妄執我 我所種。我執有二，一俱生我執，即修所斷我我所執，二分別我執，即見所斷我·我所執。隨二我執所熏成種令有情等自·他差別。三有支習氣，謂招三界異熟業種。有支有二，一有漏善，即是能招可愛果業，二諸不善，即是能招非愛果業。(隨二有支所熏成種令異熟果善·惡趣別。)\* 應知，我執·有支習氣，於差別果，是增上緣。此頌所言‘業習氣’者，應知即是有支習氣；‘二取習氣’，應知即是我執·名言二種習氣。取我·我所及取名言而熏成故，皆說名取。

다른 하나는 모든 선하지 못한 것이며, 이것은 원치 않는 과보를 불러오는 행위를 칭한다.”

[세 가지 습기에 대해 보충적으로] 해설한다. 세 가지 습기의 특징[相]은 [위] 논(『성유식론』)의 설명대로 이해하면 된다. [그리고] 세 가지 습기 모두 [여섯 가지 합성어 해석 중] 의주석(依主釋, tat-puruṣa)에 해당하는데, [그 이유는] 즉 [언어 습기는] 언어 습관이 지닌[之] 잠재적 힘[氣種子]이기 때문이며 ...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는] 중생적 삶의 요인인 업의 습관이 지닌 잠재적 힘이기 때문이다.<sup>8)</sup>

案: \* 전자가 물리적 언어라면, 후자는 마음의 언어라 할 수 있을까? 여기서의 언어의 외연은 일상 언어보다 훨씬 넓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식 대상의 특징적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는, 일종의 정신적 장애가 있는 이는 인과적 경험의 세계(=조건적 현상)를 구성해 내지 못한다고 보아야 할까?

\*\* 진제(眞諦 Paramārtha, 499~569) 역 『세친석(世親釋)』에 근거한 서술이다(『攝大乘論釋』 卷4 「釋差別品」 言說章 T. 31 178b11-16: 論曰. 三種者, 由三種熏習異故, 謂言說·我見·有分熏習差別. 釋曰. ... 由言說熏習差別者, 唯一本識由熏習差別故有三種. 言說以名爲體. 名有二種, 謂言說名·思惟名, 此二種名以音聲爲本.) 현장 역 논서를 인용할 때, 가끔 그에 대응하는 진제 역어를 명시하는 것이 『해심밀경소』의 특색 중의 하나인데, 대부분 지금처럼 ‘협주’의 형식으로 서술되어 있다. 위치럼 협주에 상응하는 티벳어역이 없을 경우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듯하다. 최동이 본 사본에는 본래 존재하지 않았거나, 아니면 존재했지만 그가 티벳어 독자에게는 무용하다고 판단하여 의도적으로 번역하지 않았을 것이다.

8) 앞서 말한대로 ‘三種習氣~氣種子故’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7.17-20: /bag chags rnam pa gsum char yanbdag poḥi dbañdu byas nas rnam par bśad pa yin te/ ḥdi ltar mñon par brjod paḥi bag chags kyi sa bon yin paḥi phyir dan/ de bñin du srid paḥi yan lag gi bag chags kyi sa bon yin paḥi phyir ro/) 역시 氣에 대한 번역이 누락되어 있다.

## 2. 본질 명시

### (1) 총론

X. 21 242c10-12; WX. 34 724a14-16:

言出體者, 如前所說, 隨二名言所熏種子, 爲名言習氣, 二種我見<執><sup>9)</sup>所熏成種, 爲我見<執><sup>10)</sup>習氣, 乃至由善 惡業所熏種子, 爲有支習氣.

[세 가지 습기의] 본질을 명시해 보면, 앞서 『성유식론』 문장 중 인용 생략 부분\*에 세] 말한 대로, 두 가지 언어의 영향 하에 형성된[所熏] 종자가 언어 습기이며, 두 가지 자아 집착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가 자아 집착 습기이며 ... 선한 행위와 악한 행위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가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이다.

案: \* 앞서 『성유식론』 문장 중 인용시 생략된 곳(각주7의 \*()) 표시 부분)을 포함한, 각 습기에 대한 해설의 마지막 문장 ‘隨二 ..’를 원측은 각각 세 습기의 본질을 명시한 것으로 읽고 여기서 그 문장을 이렇게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如前所說’이라 말한 것이다. 그 의미를 좀 더 분명히 알기 위해 생략된 곳을 온전히 번역해 보면, 먼저 언어 습기에 대해 “[이] 두 가지 언어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가 조건적 현상 각각의 직접 원인[因緣]이 된다(隨二名言所熏成種作有爲法各別因緣)” 라고 하여 언어 종자가 모든 조건적 현상의 직접 원인임을 명시하고 있다. 이 점은 이어지는 ‘현상의 종류에 따른 본질 명시[法數出體]’에서 언어 종자를 ‘100법, 즉 모든 현상의 종자’로 본 점과 연결된다. 이어서 “[이] 두 가지 중생적 삶의 요인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가 내생에 선취(善趣)의 과보를 받아 태어날지 악취(惡趣)의 과보를 받아 태어날지 그 차이를 만든다(隨二有支所熏成種令異熟果善·惡趣別)” 라는 문장 속 ‘두 가지 중생적 삶의 요인’을 여기서는 ‘선업’과 ‘악업’으로 재차 명시하고 있다.

9) 직전의 『성유식론』 인용문과 我見到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1-2: /bdag tu hdsin pa)에 비추어 볼 때 見을 執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0) 직전의 『성유식론』 인용문과 我見習氣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3: /bdag tu hdsin paḥi bag chags)에 비추어 볼 때 見을 執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2) 여러 관점을 통한 세 가지 습기의 본질 명시

A. 잠재적 힘[種子]이나, 아니면 활동 중이냐[現行]?

X. 21 242c12; WX. 34 724a16:

種·現分別, 唯種非現.

잠재적 힘[種子]인가, 아니면 활동 중[現行]인가를 구별한다면, [세 가지 습기] 오직 잠재적 힘일 뿐이며, 활동 중에 있지는 않다.

B. 전통적 세 가지 다르마 체계[三科] 속 어떤 다르마에 귀속되는가?

X. 21 242c13-20; WX. 34 724a16-b6:

三果<科><sup>11)</sup>出體.

名言習氣, 五蘊門中, 一分種子五蘊以爲自性. 除無漏種, 種隨所生,<sup>12)</sup> 同蘊攝故. 處·界門中, 一分十二處種·十八界種以爲自性. 除無漏種, 准蘊應知.

我見<執><sup>13)</sup>習氣, 五蘊門中行蘊一分所攝, 處·界門中法處·法界少分爲體.

有支習氣, 五蘊門中色·行二蘊(爲體)<sup>14)</sup>. 【以身·語業】是色蘊故, 意思業種行蘊攝故. 處·界門中色處·聲處·法處·色界·聲界·法界一分爲體.

[전통적] 세 가지 다르마 체계[三科]의 관점에서 [세 가지 습기의] 본질을 명시해 보

11)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6) /chos rnam pa gsum gyi ño bo ñid bstan na ... 에 비추어 볼 때 卍續藏經 본 교감기에서 언급한 異本을 따라 果를 科로 수정하는 것이 옳다.

12) ‘三果出體·同蘊攝故’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6-9)은 다음과 같다: /chos rnam pa gsum gyi ño bo ñid bstan na mñon par brjod pañi bag chags ni phuñpo lñañi sgo nas phyogs gcig gi sa bon ni phuñpo lñañi ño bo ñid de/ zag pa med pañi sa bon gyis bskyed pa ma gtogs par thams cad kyañ phuñpor bsdus par mtshuñs pañi phyr ro/ 따라서 최듬이 본 사본에는 除無漏種子隨所生으로 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현존 한문의 형태로도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교정하지 않는다.

13) 직전의 『성유식론』 인용문과 我見習氣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12) /bdag tu ñdsin pañi bag chags)에 비추어 볼 때 見을 執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4) 문맥과 ‘有支習氣·行蘊攝故’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8.15-18)에 비추어 볼 때 爲體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srid pañi yan lag gi bag chags ni phuñpo lñañi sgo nas gzugs danñdu byed kyi phuñpo gñis kyi ño bo ñid de/ gzugs kyi phuñpo yin pañi phyr dan/ yid kyi sems pañi las kyi sa bon ni ñdu byed kyi phuñpos bsdus pañi phyr ro/

겠다.

언어 습기와 다섯 더미[五蘊]의 분류의 관계를 보면, 일부 [언어] 종자(=결함 있는 언어 종자[有漏名言種子])는 다섯 더미 [전체]를 본질로 한다. 왜냐하면 결함 없는 종자[無漏種子]\*를 제외한 여타 종자에 의해 생겨난 [현상](=결함 있는 현상[有漏法])이라면 한결 같이 [다섯] 더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언어 습기와] 영역[處]과 기반[界]의 분류의 관계를 보면, [언어 습기의] 일부(=결함 있는 종자[有漏種子])는 열 두 영역 종자와 열 여덟 기반 종자 [전체]를 본질로 한다. 결함 없는 종자를 제외한 [여타 종자에 의해 생겨난 현상은 한결 같이 열 두 영역과 열 여덟 기반에 귀속된다는 것을 위의] 더미에 준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자아 집착 습기는 다섯 더미의 분류 중 의지[行] 더미의 일부\*\*에 귀속되며, 영역과 기반의 분류 중 사유 대상[法] 영역 및 사유 대상 기반의 일부\*\*\*를 본질로 한다.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는 다섯 더미의 분류 중 물질[色] 더미와 의지 더미 둘을 본질로 한다. 왜냐하면 [과보를 불러오는 행위 중] 몸과 말로 짓는 행위는 [그 본질에] 물질 더미이며, 뜻으로 짓는 행위 종자는 의지 더미에 귀속되기 때문이다. 영역과 기반의 분류 중에서는 색깔·모양[色] 영역, 소리 영역, 사유 대상 영역, 색깔·모양 기반, 소리 기반, 사유 대상 기반의 일부\*\*\*\*를 본질로 한다.

案: \* 앞서 말한대로 언어 습기가 모든 조건적 현상의 직접 원인이라면, '결함 없는 언어 습기'는 조건적 현상 중 '번뇌 영향 밖의 청정한 현상', 예를 들면 『성유식론』의 유식 100법 체계 상의 선법(善法)에 속하는 심리 현상들(信, 慚, 愧 등)의 직접 원인인 잠재적 마음으로 볼 수 있겠다.

\*\* 이어지는 '현상의 종류에 따른 본질 명시'에 따르면, 자아 집착 습기의 본질로 명시된 '분별[慧]과 10번뇌 중 '살가야견(薩迦耶見)'은 모두 유식 100법 체계 상 '심리 현상[心所]'에 속하며, 따라서 의지 더미 중 '심리 현상'을 동반하는 것, 즉 '심상응행(心相應行)'(나머지 일부는 '심불상응행(心不相應行)'에 귀속된다고 볼 수 있다.

\*\*\* 앞서 『성유식론』의 해설처럼 자아 집착 습기는 존재하지 않는[虛妄] '나', '내 것' 등에 대한 집착의 원인이므로, 사유 대상 중 실재하는 물질[法處實色](『역주2』 장규언 2020, 103-104 참조) 등을 제외한 '일부 실재하지 않는 대상'을 본질로 하는 셈이다.

\*\*\*\* 이어지는 '현상의 종류에 따른 본질 명시'에 따르면,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

의 본질은 각각 '색깔·모양', '소리', 심리 현상 중 '의지[思]이며, 각각 신업(身業), 어업(語業), 의업(意業)에 대응한다. 따라서 여기서 '사유 대상의 일부'는 '의지'를 지칭한다.

### C. 현상의 종류에 따른 본질 명시[法數出體]

X. 21 242c20-23; WX. 34 724b6-9:

法數出體

名言習氣, 百法門中, 通用百法種子爲體. 影像百法皆熏種故.

我見<執><sup>15)</sup>習氣, 用別境中慧及十煩惱中薩迦耶見以爲自性.

有支習氣, 十一色中色·聲二法及心所中思爲自性. (是身·語及)意思業故.<sup>16)</sup>

현상의 종류[法數]를 통해 [세 가지 습기의] 본질을 밝혀 보겠다.

언어 습기는 백 가지 현상의 분류 중 백 가지 현상 모두의 종자를 본질로 한다. 왜냐하면 영상(影像)인 백 가지 현상 모두는 [언어의] 영향 하에 형성된[熏=所熏] 종자이기 때문이다.<sup>17)</sup>

자아 집착 습기는 개별 대상과 관련된 심리 현상[別境=別境心所] 중 '분별[慧]과 열 가지 번뇌\* 중 [번뇌 영향 하의 다섯 더미[五取蘊]를 나, '내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살가야견(薩迦耶見, satkāya-dṛṣṭi)을 본질로 한다.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는 열 한 가지 물질 중 [눈의 인식 대상인] '색깔·모양과 '소리' 두 가지 현상, 심리 현상 중 '의지[思]'를 본질로 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과보를 불러오는] 몸, 말, 뜻으로 짓는 행위 [중재]이기 때문이다.

案: \*『성유식론』이 소개하는 10번뇌는 근본번뇌 여섯 중 '탐욕[貪]', '노여움[瞋]', '무지

15) 직전의 『성유식론』 인용문과 我見習氣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9.3-4 /bdag tu ḥdsin paḥi bag chags)에 비추어 볼 때 見을 執으로 교정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16) '百法門中~皆熏種故'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9.5-8 /srid paḥi yan lag gi bag chags ni gzugs rnam pa bcu gcig las gzugs dan sgrahi chos gn̄is dan/ sems las byuñ baḥi las sem paḥi ṅo bo ṅid de/ (sku dan)\* ṅag dan sem paḥi las yin paḥi phyir ro/ \*身에 상응하는 sku dan을 보충하는 것이 옳다.)에 의거하여 語를 보충하고 또 앞서 三科出體 부분(有支習氣, 五蘊門中色·行二蘊(爲體). 【以身·語業】是色蘊故, 意思業種行蘊攝故.)에 비추어 볼 때 語 앞에 身을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17) '百法門中~皆熏種故'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29.1-3: chos brgyaḥi sgo nas chos brgyaḥi sa bon gyi ṅo bo ṅid kyi gzugs brñan byed de/ chos brgya po de de dag thams cad kyañ yoñs su bsgos paḥi sa bon yin paḥi phyir ro/)을 보면, 최듬은 爲體와 影像을 연결해서 읽고 있는데 의미상 부자연스러워 보인다.

[痴], '교만[慢], '의혹[疑] 다섯에다 여섯번째 '견해[見]를 다시 '살가야견(薩迦耶見), '변집견(邊執見), '사견(邪見), '견취견(見取見), '계금취견(戒禁取見)으로 다섯으로 세분한 것이다.

『成唯識論』 卷6 (T. 31 31b16-32a5): 煩惱心所其相云何? 頌曰: 煩惱謂貪瞋 癡慢 疑惡見/(12) 論曰. 此貪等六性是根本煩惱攝故, 得煩惱名. 云何爲貪? ... 云何爲瞋? ... 云何爲癡? ... 云何爲慢? ... 云何爲疑? ... 云何惡見? ... 此見行相差別有五. 一薩迦耶見, 謂於五取蘊執我·我所. ... 二邊執見, ... 三邪見, ... 四見取, ... 五戒禁取, ... 如是總別十煩惱中 ...

### 3.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의 차이[出果(差別)]

#### (1) 두 가지 관점 소개

X. 21 242c24-243a1; WX. 34 724b10-11:

言出果者, 有其二義, 一依『成唯識』, 通約諸法以明生果, 二依『攝論』, 就十一識以辨生果.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의 차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관점의] 내용[義]이 있는데, 하나는 『성유식론』에 근거한 것이며, 모든 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섭대승론(攝大乘論)』에 근거한 것이며, 열 한 가지 식(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를 밝히는 것이다.

#### (2) 하나의 관점: 모든 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를 밝힘

##### A. 모든 현상 중 언어 습기가 만드는 결과는?

X. 21 243a2-6; WX. 34 724b11-16:

言通約諸法以明生果者.

名言習氣, 通生百法, 而差別者. 九十四法, 本質及影, 皆名言生. 六種無爲, 本·影不同, 本質六種, 不從種生. 圓成無爲無生義故. 影像六種, 從名言起. 依他無爲, 據實有爲, 託因生故. 故『唯識論』云, “名言習氣, 謂有爲法各別親種.”

[먼저 『성유식론』에 의거하여] 모든 현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

를 밝히는 관점에 대해 말해 보겠다.

언어 습기는 백 가지 현상 모두를 만들지만 [그 속에도] 구별이 있다. [백 가지 중] 아흔 네 가지 현상은 [그것들의] 본질(本質)과 영상 모두 언어가 만든 것이다. 여섯 가지 비조건적 현상[無爲法]은 본질과 영상의 경우가 서로 달라 본질로서의 여섯 가지 [비조건적 현상]은 종자로부터 생겨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원성실성(圓成實性)인 비조건적 현상은 생겨나지 않았음[無生]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반면] 영상으로서의 여섯 가지 [비조건적 현상]은 종자로부터 생겨난다. 왜냐하면 의타기성(依他起性)(=영상)인 비조건적 현상은 실상 조건적 현상이며, [그 점에서] 원인에 의지하여 생겨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유식론』에서 “언어 습기는 바로 [모든] 조건적 현상 각각의 직접적인 종자(=원인)이다.” 라고 말한 것이다.

## B. 보충 설명

X. 21 243a6-11; WX. 34 724b16-725a3:

問. 有爲法中實法有體, 可言種生, 不相應【等】既無實體, 如何因起?

解云, 據實, 假法不從種生. 故『成唯識論』第二卷云, “假法如無非因緣故.” 解云, 假法既非因緣義, 唯〈諸〉<sup>18)</sup>假法亦非所生. 然以假從實, 說爲假種, 從因緣生. 故『唯識論』第二卷云名·相·分別三種習氣.

묻는다. 조건적 현상 중 본질을 지닌 실제 현상[實法有體]은 종자가 만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하더라도, [심리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현상] 등은 기왕에 실제 본질[實體]이 없는데 어떻게 [종자라는] 원인이 만든 것이란 말인가?

해석한다. 실상 [심리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현상과 같은] 언어적 현상[假法, *prajñapti-dharma*]은 종자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2권에서 “[아뢰야식의 종자가 만들어낸 현상은 실제적 존재[實有, *dravya-sat*]이다.] 왜냐하면 언어적 현상일 뿐이라면 비존재[無]처럼 [무엇의] 원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sup>19)</sup> 라고 말한 것이다. [위 『성유식론』 말의 의미를] 해석해 보겠다. 언어적 현상이 기왕에 원인이 되

18) 문맥과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30.8 이하: *btags paḥi chos rgyu danrkyen ma yin paḥi don gyis na btags paḥi chos rnamṣ ni bskyed par bya ba yaṅma yin te*)에 비추어 볼 때 唯는 諸로 교정하는 것이 옳다.

19) 『成唯識論』卷2 (T. 31 7c14-15 ... 8a5-8): 且初能變其相云何? 頌曰: 初阿賴耶識 異熟一切種//(2b) ... 一切種相應更分別. 此中何法名爲種子? 謂本識中親生自果功能差別. 此與本識及所生果不一不異. 體用因果理應兩故. 雖非一異, 而是實有. 假法如無非因緣故.

지 못한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면, 모든 언어적 현상은 마찬가지로 [원인으로부터] 생겨난 것이 아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언어적 현상을 [그 역시 ‘언어 습기’의 결과라는] 실질의 관점에서 보면[以假從實], [언어적 현상이 ‘언어 습기’의 형태로 변화하여(= 아뢰야식을 매개로) 다시 언어적 현상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언어적 현상의 종자(假種=假法種子, prajñapti-bīja)’라고 말할 수 있으며, [따라서 언어적 현상도 ‘언어 습기’라는] 원인으로부터 생겨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2권에서 [아뢰야식(阿賴耶識)의 인식 대상인 원인(所緣=所緣緣)으로] 이름(名, nāma) 습기, 형상(相, nimitta) 습기, 분별(分別, vikalpa) 습기 셋을 언급한 것이다\*.

案: \*「역주2」의 ‘여덟 식의 특성들’에서 원측은 ‘결함 있는 아뢰야식의 인식 대상(所緣境) 중의 하나로 동일한 『성유식론』 제2권을 근거로 ‘결함 있는 종자(有漏種子)’를 제시하였다(장규언 2020, 103 참조). 다만 거기서는 ‘결함 있는 종자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지칭하는지 생략하고 있는데, 아래에서 확인 가능하듯, 그것은 ‘이름 습기’, ‘형상 습기’, ‘분별 습기’ 셋, 즉 ‘언어 습기’이며, 아뢰야식은 이 언어 습기를 ‘인식 대상(의 원인)[所緣(緣)]’으로 하여 발생한다. 앞서 ‘언어 습기’가 실제적 현상이 아닌 언어적 현상이 그 본성인 ‘심리 현상을 동반하지 않는 현상[心不相應法]’을 포함한 모든 조건적 현상의 직접 원인이라고 한 설명에 비추어 볼 때, 결국 ‘언어적 현상’도 아뢰야식 속의 ‘언어 습기’를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成唯識論』卷2 (T. 31 10a11-19): 此識行相·所緣云何? 謂不可知執受·處·了. 了謂了別, 卽是行相. 識以了別爲行相故. 處謂處所, 卽器世間. 是諸有情所依處故. 執受有二, 謂諸種子及有根身, 諸種子者, 謂諸相·名·分別習氣, 有根身者, 謂諸色根及根依處. 此二皆是識所執受, 攝爲自體同安危故. 執受及處俱是所緣. 阿賴耶識因緣力故自體生時, 內變爲種及有根身; 外變爲器, 卽以所變爲自所緣.

C. 모든 현상 중 자아 집착 습기와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가 만드는 결과는?

X. 21 243a12-13; WX. 34 725a3-5:

我見<sup>20)</sup>習氣, 能生自·他身中百法差別.

有支習氣, 能生百法善·惡趣別.

無爲·假法, 准前應思.

[앞서 『성유식론』 제8권의 설명에서 보았듯] 나리는 잘못된 견해[我見](=자아 집착[我執]) 습기는 내 몸과 타인의 몸에 속하는 백 가지 현상들 간의 분별을 만들어 낸다.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는 백 가지 현상 중 선악의 구별을 만들어낸다.

[나리는 집착 습기와 중생적 삶의 요인 습기가 만들어내는] 비조건적 현상과 언어적 현상에 대해서는 앞(=언어 습기)의 경우에 비추어 보면 된다.

(3) 다른 하나의 관점:

열한 가지 식(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를 밝힘

X21 243a14-18; WX34 725a5-10:

言就十一識辨生果者, 如『攝大乘論』第四卷云, “此中若身·身者·受者識·彼所受識·彼能受識·世識·數識·處識·言說識, 此由名言熏習種子; 若自他差別識, 此由我見熏習種子; 若善趣惡趣死生識, 此由有支熏習種子.”<sup>21)</sup> 廣如彼釋.

열한 가지 식(識)과 관련하여 [세 가지 습기]가 만드는 결과를 밝히는 관점은 예를 들면 『십대승론』 제4권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경우이다. “이 [열한가지 식] 중 신식(身識), 신자식(身者識), 수자식(受者識), 피소수식(彼所受識), 피능수식(彼能受識), 세식(世識), 수식(數識), 처식(處識), 언설식(言說識) 이상 [아홉 식]은 언어의 영향 하에 형성된 [熏習=所熏習(成)] 종자로 말미암아 발생하며, 자타차별식(自他差別識)은 나리는 잘못된 견해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로 말미암아 발생하며, 선취악취사생식(善趣惡趣死生識)<sup>22)</sup>은 중생적 삶의 요인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로 말미암아 발생한다.” 자세한

20) 앞서의 경우와 달리 여기서 我見習氣에 상응하는 티벳어역(ZhT. 68,530.13)은 bdag tu ḥdsin paḥi bag chags가 아니라 bdag tu lta baḥi bag chags이다. 최둠이 본 사본에서 我執과 我見이 의미상 통용되면서 혼용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1) 『攝大乘論本』 卷中 所知相分 (T. 31 137c29-138a11): 此中何者依他起相? 謂阿賴耶識爲種子, 虛妄分別所攝諸識. 此復云何? 謂身·身者·受者識·彼所受識·彼能受識·世識·數識·處識·言說識·自他差別識·善趣惡趣死生識. 此中若身·身者·受者識·彼所受識·彼能受識·世識·數識·處識·言說識, 此由名言熏習種子, 若自他差別識, 此由我見熏習種子, 若善趣惡趣死生識, 此由有支熏習種子. 由此諸識, 一切界趣雜染所攝, 依他起相虛妄分別, 皆得顯現. 如此諸識, 皆是虛妄分別所攝, 唯識爲性, 是無所有, 非眞實義顯現所依. 如是名爲依他起相.

22) 아라마키 노리토시(荒牧典俊)는 티벳어역을 참조하여 이 한역어들의 산스크리트어 원어를 순서대로 deha-, dehin-, bhokṭṛ-, upabhogya-, upabhoga-, adhvan-, samkhyā-, deśa-, vyavahāra-, svapara-viśeṣa-, sagatidurgaticyutyupapatti-vijñapti로 추정하고 있다(長尾雅人 1982, 277).

것은 그 『섭대승론』에 대한 주석<sup>\*23)</sup>에서와 같다.

案: \* 각주23에 인용된 『세친석』과 『무성석』을 종합해 보면, ‘신식’은 눈 등 다섯 가지 신체적 인식 능력을, ‘신자식’은 이 신체적 인식 능력의 의지처인 (변뇌 영향 하의) 사유 능력[(染汚)意]을, ‘수자식’은 신체적 인식과 대비되는 사유(=정신적 인식)의 의지처인 사유 능력을, ‘피소수식’은 위의 신체적·정신적 인식 능력의 인식 대상인 색깔·모양 등 여섯 가지 인식 대상을, ‘피능수식’은 신체적·정신적 인식인 시각 등 여섯 가지 인식을 각각 지칭한다. 이상의 여섯 식은 우리 마음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이어서 ‘세식’은 변화와 관련된 시간 개념을, ‘수식’은 수 개념을, ‘처식’은 공간 개념을, ‘언설식’은 언어를 각각 지칭한다. 이상의 세 식은 환경 인식의 구성 요소라 할 수 있다.

결국 이상 아홉 식은 우리의 경험 세계의 구성 요소라 볼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결국 언어 습기(=잠재적 언어)의 산물이라는 것이다.

#### 4. 세 가지 습기는 네 가지 원인[四緣] 중 어디에 귀속되는가?

X21 243a19-22; WX34 725a11-14:

言四緣分別者，名言習氣，是正因緣，餘二習氣，(是)<sup>24)</sup>增上緣。故『成唯識』第八卷云，“隨二名言所熏成種作有爲法各別因緣。”又彼復云，“應知，我執·有支習氣，於差別果是增上緣。”

23) 세친석 『攝大乘論釋』卷4 所知相分 (T. 31 338a11-21): 釋曰。虛妄分別所攝諸識者，謂此諸識虛妄分別以爲自性，謂身·身者·受者識者。身謂眼等五界。身者謂染汚意。能受者，謂眼界。彼所受識者，謂色等六外界。彼能受識者，謂六識界。世識者，謂生死相續不斷性。數識者，謂算計性。處識者，謂器世間。言說識者，謂見·聞·覺·知四種言說。如是諸識，皆用所知依中所說名言熏習差別爲因。自他差別識者，謂依止差別，此用前說我見熏習差別爲因。善趣惡趣死生識者，謂生死趣種種差別，此由前說有支熏習差別種子。

무성석 『攝大乘論釋』卷4 所知相分 (T. 31 399a14-b1): 釋曰。謂身·身者·受者識者，如後當說，眼等六內界爲性，如其所應眼等五識所依眼界，名身者識，第六意識所依眼界，名受者識。彼所受識者，如後當說，是色等六外界。彼能受者，如後當說，是六識界。世識者，謂似三時影現。數識者，謂似一等算數影現。處識者，謂似聚落園等影現。言說識者，謂似見·聞·覺·知言說影現。自他差別識者，謂身等識我·我所執相續不斷執我·我所·他·他所等有差別故。善趣惡趣死生識者，謂似天人及奈落迦傍生餓鬼死生影現。此中若身·身者等乃至言說識，此由名言熏習種子者，謂彼身等，皆由名言熏習種子。識所變現無別事故。若自他差別識，此由我見熏習種子者，謂染汚意我見熏習爲因變現。若善趣惡趣死生識此由有支熏習種子者，謂由有支熏習爲因變現。

24) 문법과 짝수 음절 한 구 구성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 是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세 가지 습기 각각의] 네 가지 원인[四緣] [귀속 상의] 차이를 말한다면, 언어 습기는 직접 원인[因緣, hetu-pratyaya]이며, 나머지 두 가지 습기는 지배적 원인[增上緣, adhipati-pratyaya]이다. 그래서 『성유식론』 제8권에서 “[언어 습기에 대해,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와 인식 대상을 설명하는 언어 이] 두 가지 언어의 영향 하에 형성된 종자가 조건적 현상 각각의 직접 원인이 된다”<sup>25)</sup> 라고 말하고, 또 거기에서 “자아 집착 습기와 증생적 삶의 요인 습기가 [선취, 악취 등 과보라는] 특정한 결과[差別果, phala-viśeṣa<sup>26)</sup>]에 대해 지배적 원인임을 알 수 있을 것이다.”<sup>27)</sup> 라고 말한 것이다.

若廣分別, (如)<sup>28)</sup>『成唯識論』第八『疏』

[이상으로 세 가지 습기에 대한 네 가지 관점에서의 간략한 설명[略辨]은 끝났다.] 자세한 분석은 『성유식론』 제8권에 대한 [나의] 『소(疏)』(『성유식론소(成唯識論疏)』)와 같으니, 참조하길 바란다.\*

案: \* 『해심밀경소』가 포함하는 이러한 주제별 강의는 이 책이 유식 개념 학습서로도 읽힐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필자는 도청설(盜聽說)의 과문에도 불구하고, 『해심밀경소』가 지금까지 전해지고, 또 수많은 한문 주석 문헌들 중에 선택되어 티벳어로 번역되고, 종카빠(Tsong Kha pa, 1357~1419)와 같은 학승들에게 인용될 수 있었던 이유 중의 하나로 그의 해설이 지닌 지적 매력을 꼽고 싶다. 물론 원측을 통해 유식학을 조금씩 공부해 가고 있는 필자 역시 그 매력의 수혜자이기도 하다.

바. 2-1-1-1-2-2-1-1-1[釋一切種子識] 이하의 과단과 이 구절의 주제

X. 21 243a23-24; WX. 34 725a15-16:

就種識中, 文別有二. 初約趣·生略明身分生起, 後於中'下依種子識廣辨受生差別, 此即初也.

25) 각주7의 『성유식론』 문장 중 원측 인용에서 생략된 ‘( )’\* 부분 참조.

26) 뿌생(Poussin 1928-1929. 480)의 보충 설명과 추정 산스크리트어를 따랐다.

27) 각주7의 『성유식론』 문장 후반의 밑줄 부분 참조.

28) 한문 문법, 상응하는 티벳어역(ZhT68.531.16-18: rgya cher rnam par hbyed pa ni rnam par rig pa tsaṃ du grub paḥi bstan bcos bam po brgyad paḥi ḥgrel pa las bstan pa bsin no), 글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동사 如 정도를 보충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제8식의 여러 이름 중 하나인] ‘중자식’의 의미를 밝히는 것]과 관련하여 경문이 둘로 나누어진다. 앞부분은 [다섯 혹은 여섯 가지] 길[趣]과 [네 가지] 탄생[生]을 통해 상이한 몸으로 태어난다는 점을 대략적으로 밝힌 것이고, 뒷부분 ‘於中’ 이하는 ‘중자식’과 관련지어 태어남의 특성을 자세히 밝힌 것이며, 이 구절은 그 중 앞부분에 해당한다.

案: 여기서 과단이 비로소 마무리되고, 본격적인 경문 해석을 예비하고 있다.

## 대장경 약호

T. : 大正新修大藏經 (CBETA 전자판)

X. : 新纂 大日本續藏經 (CBETA 전자판)

WX. : 卍續藏經(藏經書院版), 臺北: 新文豐出版公司 影印, 民國66(1977).

ZhT. : 藏文 中華大藏經, 中國藏學研究中心大藏經對勘局 對勘\*, 北京: 中國藏學出版社, 2001. (\*sDe  
dge관 저본, Peking·Narthañ·Cone관 대조)

H. : 『韓國佛教全書』, 서울: 동국대학교 불전간행위원회, 1977~2004.

## 1차자료

圓測 撰, 『解深密經疏』 (X. 21; WX. 34-35; H. 1)

*Hphags pa dgoñs pa zab mo ñes par h̄grel pañi mdo rgya cher h̄grel pa* (ZhT. 68-69)

護法等菩薩 造, 玄奘 譯, 『成唯識論』 (T. 31)

無著菩薩 造, 玄奘 譯 『攝大乘論本』 (T. 31)

世親菩薩 釋, 眞諦 譯, 『攝大乘論釋』 (T. 31)

世親菩薩 釋, 玄奘 譯, 『攝大乘論釋』 (T. 31)

無性菩薩 釋, 玄奘 譯, 『攝大乘論釋』 (T. 31)

## 2차자료

이종철. 2015. 『구사론 계품·근품·과아품: 신도 영혼도 없는 삶』, 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장규언. 2013. 「원측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 역주(1) - 텍스트 교정을 견해-」 『불교학리뷰』 14:  
125-167.

\_\_\_\_\_. 2020. 「원측 『해심밀경소』 「심의식상품」 역주(2) - 텍스트 교정을 견해-」 『불교학리뷰』 27:  
91-111.

長尾雅人. 1982/1987. 『攝大乘論: 和譯と注解』 上/下, 東京: 講談社.

漢語大詞典編纂委員會 編纂. 2000. 『漢語大詞典(普及本)』, 上海: 漢語大詞典出版社.

Lamotte, Étienne. 1935. *Samdhinirmocana-sūtra, L'explication des Mystères*,

Louvain: Université de Louvain.

Poussin, Louis de la Vallée. 1928-1929. *Vijñaptimatratāsiddhi: La Siddhi de Huian-Tsang*,  
2 Tomes, Paris: Librairie Orientaliste Paul Geuthner.